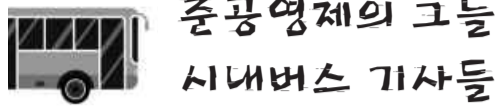


# 사고 처리 자부담·무급 휴일 징계... '불공정 관행' 여전



## 준공영제의 그늘 시내버스 기사들

### <하> 제도 개선 방안

지난해 광주 시내버스 이용객은 대략 8500만명. 통계 수치만 놓고 보면 코로나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로 고려해더라도 매일 23만 3000여명이 시내버스 기사와 만났다는 계산이 나온다.

광주시가 준공영제를 도입, 10개 시내버스 회사에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을 지원하자는 것도 많은 시민들의 편안한 시내버스 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그럼에도, 시내버스 기사들은 2시간 가까이 운전하고도 허리 한 번 펴지 못한 채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시간에 쫓기는 근무 환경, 교통사고라도 날 경우 처리비를 본인에 내야 하는 불공정한 관행에 고통받고 있다. 준공영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시민들의 세금이 원래 취지에 맞게 쓰여지는지 관리·감독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버스기사들, 자기 돈으로 사고보험료 내는 일

근로일수 많아야 기본급 오르는 임금 체계 개선 안돼  
불투명 가족 경영·이중 급여 수급 등 '시민 혈세' 낭비  
광주시 등 행정당국, 지원금 관리·감독 적극 나서야

없어야 광주시가 지난해 10개 시내버스회사에게 지원한 보험료는 46억원. 지난 2007년 39억원을 지급한 이후 10년 넘도록 40억원이 넘는 돈을 버스회사의 보험료로 지원해왔다.

이런데도, 버스기사들은 교통사고만 나면 자기 돈으로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관행을 감수해야 했다.

버스기사가 운전 중 낸 교통사고의 경우 버스회사가 책임지거나 버스공제조합에 신고해 처리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버스업계 노동자가 이같은 문제로 고민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교통사고를 낸 버스운전자들은 무급 휴일의 징계를 받기라도 하면 근무일수 감소로 임금이 삭감되는 손해를 볼 수 있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부담을 선택하는 것이다.

민주노동 등 노동계가 지난 2010년부터 20년 넘도록 매년 버스기사 사고처리비 자부담 관행 철폐를 요구했지만 광주시 등 행정당국의 소극적 행태로 현장에서는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게 버스기사들 목소리다.

특히 대형 버스기사들의 임금 체계도 불공정 관행이 이어져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광주시내 버스 기사들의 임금 지급 방식은 기본급에 연장·야간근로, 주휴수당·초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제'다. 시간급(時間給) 임금의 한 형태도, 기본급을 하루 단위로 정하고 실제 노동일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방식인데 근로일수가 많아 기본급이 높아져 임금도 많아지는 구조다.

쉬는날이 많으면 기본급 자체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애초부터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로 환경에 놓여있는 셈이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내버스기사의 경우 한 달간 근무를 하지 못해 버스회사에서는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게 버스노조측 설명이다.

◇광주시, 세금 제대로 쓰이는 지 감시 제대로 해야  
광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시내버스 기사들의 불편한 근로 환경과 업무 조건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광주시가 준공영제 예산으로 매년 수천억원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시민의 한사람인 시내버스 기사들의 불공정한 실태 개선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회사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 운전직 인건비·연료비·정비비·차량 감가상각비·보험료·적정 이윤 등을 고려해 표준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일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광주시가 지난 2007년 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 14년 동안 지원한 지원금만 196억원(2007년)을

시작으로 293억원(2008년)→ 352억원(2010년)→529억원(2015년)에서 지난해 1193억원으로 1000억원이 넘어섰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버스기사들 노동 조건 개선에는 뒷집을 진 모양새다. 시내버스 보험료 자부담 관행만 하더라도 버스회사, 기사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의 발 노릇을 하는 시내버스 기사들이 불편한 근로 환경에 놓여 있다면 시민들 버스 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원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절실하다.

일부 버스 업체들의 친·인척 채용을 통한 가족 경영 체제에서 벗어나는 불투명한 운영, 한 회사 대표가 다른 시내버스 회사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양쪽에서 급여를 받는 문제점 등에 대한 시정 조치로 지원금이 허투로 쓰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전국자동차노조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시민 세금을 가지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투명한 준공영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문인 북구청장·김삼호 광산구청장·최형식 담양군수·유두석 장성군수(오른쪽부터) 등 광주·전남 북부권 4개 단체장은 지난 23일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었다. <광주 북구 제공>

##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 대선 공약 발굴 논의

### 광주 북구·광산구·장성군·담양군

광주·전남 북부권 4개 단체장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여 광주·전남 북부권역의 현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북부권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마련된 청사진을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의 밑바탕으로 삼게 해 실현 가능케 하겠다는 게 단체장들의 구상이다.

25일 북구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광산구, 전남 담양·장성군 등 광주·전남 북부권 4개 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여,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4개 자치단체장은 ▲첨단3지구 행정구역 조정 ▲상생발전 대선공약 발굴 ▲각종 현안사업 공동 대응 등 광주전남 북부권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첨단3지구 개발 관련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및 생활권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경계조정안에 공감하고 '첨단3지구 행정구역 조정 TF' 회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또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대선공약을 발굴하고 광주시와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업은 '빛고를 생활권 행정협의회'를 통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상생발전협의회장인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견고히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는 광주 북구·광산구, 전남 담양군·장성군 등 4개 지자체가 경제·산업,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교류·협력하기 위해 2019년 1월 발족했으며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여학생도 양궁 기회 달라" 엄마의 골든 선택

### '양궁 숲' 안산 부모 안경우·구명순씨

과학·수학 영재로 뽑혔던 산이  
대나무축제 화살 재밌어 하길래  
양궁부 창단 광주 문산초 설득

"산이가 활터를 놓이려고 생각하고 마음껏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결과까지 좋아 더 없이 기쁩니다."

지난 24일 광주여대 국제회의장. 안산의 아버지 안경우(54)씨는 학교 관계자 등과 의견을 하다 마지막 화살이 9점에 꽂히면서 한국의 금메달이 확정되자 아내 구명순씨(50)와 열싸인고 기쁨을 나눴다.

안씨는 "경기장에서 감독, 코치 등 지도자들이 '아빠'로 생각하고 따라라고 당부했었다"며 "지금까지 뒷바라지해준 지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안산은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양궁계에 입문하지 못할뻔 했다고 한다. 그가 광주 문산초등학교에 다니던 때 양궁부가 창단했는데, 남자 선수들만 선발했다. 어머니는 학교와 지도자 등에게 "여학생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설득한 끝에 안산을 양궁부에 들여보냈다.

구씨는 "산이는 초등학교때 과학·수학영재로 뽑힐 정도로 영특했다"면서도 "하지만 담양 대나무축제에서 구입한 화살을 가지고 놀면서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 양궁을 권했다"고 회상했다.

안산은 아버지의 스포츠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안산의 부모 안경우(54·왼쪽 세번째)·구명순(50·두번째)씨가 지난 24일 광주여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랜선올림픽에서 안산이 도쿄올림픽 혼성전 금메달을 확정하자 김성은(맨 오른쪽) 광주여대 감독, 박현수(오리코 코치) 전 광주체육중 코치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강진을 남포리가 고향인 아버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육상 선수로 뛰었다. 어머니도 현재 롤러 스케이팅을 즐길 정도로 스포츠 가족이기도 하다.

안경우씨는 안산의 뒷바라지를 위해 최근 5년 동안 각종 대회장을 찾는 등 거의 생업을 접다시피했다.

그는 현재 광주지역 양궁선수 학부모들의 모임

인 '양사모'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들 회원들은 지난 1~2일 열린 제32회 전국 남·여 초등학교 양궁대회, 3~9일 열린 제39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기간 경기장에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음식과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든든한 응원군으로 광주에서 열린 대회에 성공개최에 한몫하기도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